‘지(止)’를 닦을 때 주의할 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만약 지(止)를 닦는 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로하고

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관(數息觀)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형색 곧 인간의 육체적 상태를 죽고 난 후의 해골과 뼈로 보는 백골관(白骨觀) 따위를 의지하지 말며, 공(空)이니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며,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이니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며,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껴 아는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소승의 수행자들이 선정을 닦을 때 하는 방법인 의시적인 관념에 의거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지를 닦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내주(內住)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외부 경계의 어떤 것에도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일체의 모든 생각을 생각마다 다 제거하라.” 이는 등주(等住)의 경지를 말한다.

③ “밖으로 쏠리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제거하라.” 이는 안주(安住)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④ “이 세상 만물은 본래 집착할만한 본질적 성격이 없는 것이므로 잠시도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다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근주(近住)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⑤ “외부의 사물이나 모양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 기억의 대상 등을 보고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조순(調順)을 말하는 것이다.

⑥ “고요한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라.” 이는 적정(寂靜)을 말하는 것이다.

⑦ “마음이 만약 경계를 따라 흩어지거든 다시 그 산란해진 마음을 거두어 한데 모아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바른 생각이란 일체 외계의 사물은 오직 자기 마음의 소산임을 아는 것이다. 또 이 마음에 어떤 특수한 외형적 모습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는 최극정(最極靜)의 경지를 말한다.

⑧ “앉았다 일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 언제나 항상 그것이 모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좋은 방편인 줄 알고, 잘 관찰하여 오래 익히고 배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오로지 한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전주일처(專住一處)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⑨ “마음이 안정되어 가만히 있게 되면 점점 총명해져서 저절로 진여삼매(眞如三昧)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9가지 마음 과정 통해 성취

아만 · 게으름, 성취의 장애물

다.” 이는 등지(等持)의 경지로 지(止)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생멸심이 없어지고 무분별의 심체가 드러난 경지라 할 수 있다.

이상 아홉 가지 마음이 머무는 경지(九種心住)를 차례대로 설하여 지(止)가 성취되는 과정을 밝혀 놓았다. 지(止)가 이루어지면 번뇌를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신심이 늘어나 물러나지 않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의혹하고 있거나 믿지 않는 경우는 지(止)를 이룰 수가 없다. 정법을 비방하는 중죄(重罪)와 내가 잘났다는 아만(我慢)을 가진 자 또 게을러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止)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혀 놓았다.

원효는 그의 소에서 본문의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 부가설명을 하면서 고요한 곳이란 첫째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산림(山林)이라 했고 둘째 계(戒)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윤리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는 지난 적의 잘못을 뉘우쳐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로 수행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넷째는 바깥 세계 곧 세속의 환경과 관계가 단절되어야 한다고 예시 했다.

이어 말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말세의 수행자는 올바른 원을 가진 자(正願者)가 적고 그릇되게 구하는 자(邪求者)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수행이나 공부에 있어서 뜻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자비심으로 보시한다면 ‘해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③1보시와 해탈의 관계

三有生死熾然大苦。菩薩處之如涅槃樂。何以故。為欲救濟諸眾生故。菩薩念言。悲眾生者卽是我解脫。以大施惠救濟眾生。眾生得樂卽是我解脫。雖復大施若無悲心不名為施。若有悲心施卽是解脫。(삼유생사치연대고。보살처지여열반락。하이고。위욕구제제중생고。보살념언。비중생자즉시아해탈。이대시혜구제중생。중생득락즉시아해탈。수부대시약무비심불명위시。약유비심시즉시해탈。)

번역

삼계(三界)에 나고 죽는 불타는 큰 고통도 보살은 살면서 열반의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곧 나의 해탈이다”라고 합니다. 크게 보시함으로써 은혜롭게 중생을 구제함은 중생이 즐거움을 얻어야 곧 이것이 나의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시 크게 보시할지라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라고 부르지 못하거니와 만약, 자비심으로 보시할 수 있다면 바로 해탈입니다.

해설

부처님의 출가 전 왕자 때의 이름이 ‘싯닷타’이다. ‘싯닷타’라는 말은 ‘무엇이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어나서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어 싯닷타는 화려한 궁궐과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6년간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고행을 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 연기법(緣起法)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인 사성제(四聖諦)이며, 이 사성제의 원리를 풀어놓은 것이 연기법의 무명(無明)으로부터 시작된 12연기의 일체 현상과 고통이며, 그 고통의 고리를 소멸시키는 길(道)이 멸도(滅道)다.

그런데, 대승의 보살도는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 중생의 생사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자신의 고통만을 여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곧 중생과 어우러진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열반의 꽃을 피운다.

제바보살은 말한다. 중생의 즐거움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자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며,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열반의 즐거움이라고.

해탈의 길은 중생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그 탐욕의 번뇌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상대는 중생이며,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스스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이가 있으면 그가 곧 해탈한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삼계의 고통은 보살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생사는 고통이 아니라 열반락(涅槃樂)과 맞닿아 있는 경계일 뿐이다. 생사의 고통은 벗어나야 할 예토(穢土)가 아니라 자비심을 실천할 다시없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고통에 보살심이 스며들면 고통이 곧 해탈이자 열반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자연 그대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어느 정비업체에 걸린 문구처럼
버리고 비우고 닦아야 한다는 말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젊음과 싸움질을 거듭하지만
해 저문 날 돌이켜보면
한 줄기 바람 같은 허무뿐이다.

글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미움도 진리, 그리움도 진리,
진리는 자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자갈처럼 빨래처럼
퍼질러 있는 것을,
낙엽처럼 지고야 말
삭신을 추스르며
자연 그대로의 부처를 본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 것 없이.
버리고 비우고 닦을 것 없이.

열린 진리 · 세계 보여주는 것이 설법

격식 · 형식 갇히면 ‘노인불교’로 만족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보면 극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지난 금요일 창원에서 버스 한 대로 청법 대중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법문을 듣게 했다. 청법가 없이 서서하는 합장인사 한 번으로 청법 대중과 어깨동무 하듯 법회를 열어갔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설법 중에 부르는 정훈희의 ‘스잔나’를 저음으로 노래하였다. 다른 법사 스님들은 가사장삼에 법상(法床)에 올라 주장자까지 힘겹게 들고 설법하지만 나는 언제나 가사장삼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자작시와 유행가를 곁들이며 부처님 말씀을 풀어간다.

형식과 격식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지만 열린 불교의 열린 가르침에는 처음도 중간도 마무리도 좋은, 표현과 논리를 갖춘 설법다운 설법이 더욱 중요할 터이다. 비논리적인 형이상학으로 끝간데를 가늠 할 수 없는 영험 설화등을 풀어내는 설법은 메아리를 잃고 부끄러움으로 남는다.

한 시간을 떠들어도 알곡 한 톨 추려낼게 없는 빈 쭉정이 뿐이라면 가당찮게 설법자로 나서는 용기는 잠재워야 할 터이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 내용은 세제불교(世諦佛敎)의 방편설(方便設)과 진제불교(眞諦佛敎)의 성불론(成佛論)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이 난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밖에 있지도 않는 흰 소 수레와 흰 사슴 수레가 있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태워 줄 것처럼 불난 집안의 아이들을 불러내는 가르침이 세제불교의 방편설이다.

이에 비해 마음이 곧 부처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을 인불사상(人佛思想)으로 바로 일깨워 주는 것이 진제불교의 성불론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신앙은 누구나 사닥다리에 오르듯 하여 시야를 트이게 하고 마음을 열어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열린 세계, 열린 진리를 펼쳐 보여 주는 것이 설법의 생명력이라 할 것이다.

법사가 설법 중간 중간에 한문으로 된 게송이나 읊고, 청중이 착하게도 나무아미타불이나 합창한다면, 법사가 주장자를 높이 들거나 법상을 가볍게 내리치며 ‘대중은 알겠는가?’ 하고 묻는 게 설법의 전형이라면 이는 이 시대가 외면 할 수밖에 없는 박제된 미이라의 법문일수밖에 없을 터이다.

요즘 세대는 한문이 아닌 한글세대 이다. 청중의 눈높이에 따라 설법의 내용도 경전 밖의 다양성 까지 요구되는 세대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격식의 불교, 형식의 불교, 고정 틀에 갇힌 불교는 노인불교로 만족해야 할 터이다. 자유로움, 평화로움은 현대인이 즐겨 희망하는 자연인의 신앙 세계이다. 누구나 찾아와 아무나 편안함과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박수치며 환히 웃는 설법의 열린 마당이 되어야 한다.

비구(比丘)는 걸사(乞士)인데 천 여 만원이 넘는 천연 실크로 만든 장삼, 가사를 휘감고 법상에 앉아 있는 몇몇 스님들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거리감을 느낄 터이다. 검소한 모습, 꾸밈과 조작이 없는 모습, 감추고 드러낼 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설법하는 모습이 그리운 오늘이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표현과 논리를 갖춘 설법다운 설법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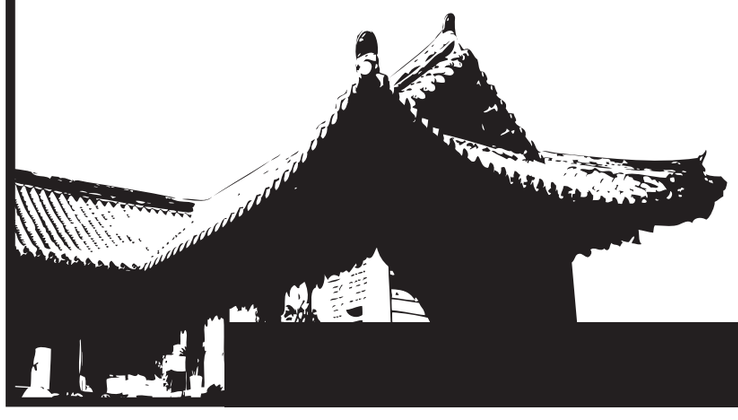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